

THE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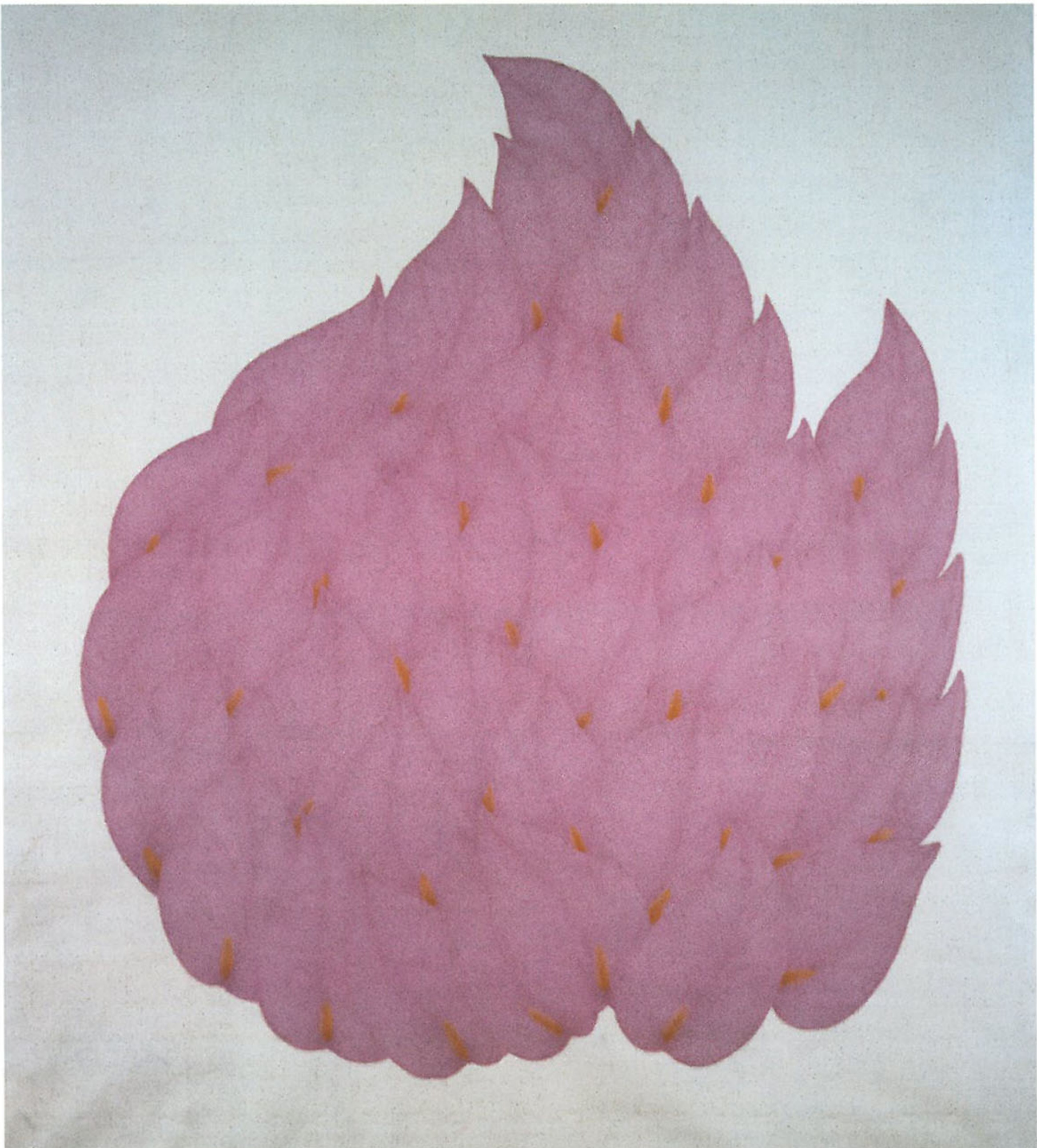
BEAUTIFUL CONSUMER, BETTER CULTURE

AUGUST 2013, VOL 160



김홍주 作 무제

미술계의 트렌드와는 상관없이 끈질기게 회화의 본질을 추구해온 작가 김홍주. 그는 얇은 붓과 정교한 손놀림으로 가장 얇게 덧칠해나가며 작품을 완성한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 회화의 가장 근원적 방식인 '그리는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1970년부터 다양한 소재를 다뤄온 그는 꽃 그림 작가, 글자 그림 작가 등 수많은 별칭으로 불려왔다. 그중 꽃과 풍경을 소재로 한 세밀화들은 회화의 본질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세련된 감각이 결합돼 국내외 평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작가는 그림이란 상징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이전에 어디까지나 '시각적 대상'임을 강조하며, 관람자에게 어떤 의미도 강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작품 제목은 대부분이 <무제>다. 그림이 지닌 순수한 시각적 미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감상'하는 기회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김홍주의 작품을 제대로 체험하는 방법이다.



<Untitled>, 2009 acrylic on canvas, 143 x 146 cm